

광주동부교육청-동구지역자활센터 업무협약

장애학생 통합교육 활성화·저소득주민 균로의욕 고취

이달 말까지 관내 4개교에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추진

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이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수경)와 지난 16일 오후 2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의 꿈을 키우는 행복한 동부교육’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통한 희망의 공동체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동구 관내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동구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자활사업 참여주민 자립·자활 정보제공 및 취

업기회 우선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학생 통합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동구지역 관내 4개교(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인호 기자

강진군 군동면지역사회협의체

주민 주도형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한 정기 회의

상·하반기 실적·계획 등 논의

강진군 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군동면지사협’)는 지난 16일 군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용현 위원장과 윤호경 민간공동위원장과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번 정기 회의는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과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 및 군동면 지정기탁금 ‘나눔 곳간’ 지역특화사업 추가 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군동면지사협은 상반기에 군동면 지정기탁금 ‘나눔 곳간’ 후원금으로 설 음식 나눔 사업 및 거동불편대상 이미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신규 지역특화사업으로 훌봄 어르신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건강한 밥상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훌봄 어르신 ‘건강한 밥상 나눔’ 사업은 반찬나눔 봉사단이 주축이 돼 강진군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2020년 하반기 신규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70% 이상이 노인세대로 단순한 주거 수리조차 못하는 어려움을 사회단체, 주민 등 봉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방충망 수리·교체, 문풍지, 단열 필름 설치 등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군동면지사협은 ‘나눔의 미학(美學)’이라는 슬로건으로 ‘소회행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자생력을 촉진해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한다.

군동면지사협 윤호경 민간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된 지 4년이 되어가고 있다. 4년 동안의 큰 변화는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성지회, 체력단련 등산교실 ‘성료’



백양사서 시각장애인 및 안내자

20여명 참여 기초재활교육 실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성지회(지회장 황선권)은 지난 16일 백양사 일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 및 안내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마음을 등산을 통해 해소하며 시각장애인들에게 체력단련의 시간이 되었다.

이어 전남도·전남전자도서관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책을 많이 접할 수 있게 시범사업으로 녹음도서책을 읽어줄 수 있는 기기를 지원받아 15명에게 나눠줬다.

황선권 장성지회장은 “지역명소인 백양사에서 이뤄진 등산교실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됐고 다들 즐겁게 등산을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와 전남전자도서관의 사업을 통해 많은 책을 시각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게 됐는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재개관

주간보호시설 등 3개소 운영 재개…무료급식 시간대별 분산

순천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했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 3개소에 대해 최근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우선 순천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관하는 만큼 기존 지정된 방역관리지를 중심으로 위생관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 할 방침이다.

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1미터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고,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등을 필수 사항이 됐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총 12개 분야 117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나 당분간 집단 그룹프로그램 운영은 지

양하고, 소규모 그룹프로그램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었으나 15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시설에서의 무료급식은 시간대별 분산 운영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배식함으로써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순천시 김정수 노인장애인과장은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관하는 만큼



장애인 이용시설을 찾는 장애인들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창호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숭어 등 자연의 보고...

창호로 무안



무안군